

최근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

산업분석실
이호 책임연구원

KATECH Insight

-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확대 영향으로 '25.1Q 높은 성장률을 보여 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기대되나,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영향의 본격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 우려도 부상 중
- ◆ 친환경차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그간 둔화 흐름을 보인 BEV 시장도 '25.1Q 성장률 회복.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5.1Q의 높은 성장률 지속에는 보수적 관점

»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과거 성장 경로로의 복귀가 기대되는 상황

- 이는 세계 1·2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中·美에서 주로 기인한 것인데, 특히 최근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전 세계 판매량 증가분 중 '24년 49%, '25.1Q 75%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 인도는 '22년 일본의 판매량을 추월하며 국가 단위로 세계 3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자동차 판매량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신흥시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ASEAN 국가들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답보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인도가 중국 의존도 완화의 수혜국으로 주목받는다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24년 부진했던 일본 시장은 '25.1Q 경제성장을 저조에도 판매량이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 특징적으로, 품질인증 부정 및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 해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Ⅰ 2024년 기준 상위 12개국 및 전 세계 완성차 판매량 Ⅰ

국가	판매량(천대)					증감률(%)	
	2022	2023	2024	2024.1Q	2025.1Q	2024	2025.1Q
중국	26,863	30,093	31,436	6,717	7,467	4.4	11.1
미국	14,384	16,125	16,490	3,897	4,026	2.2	3.3
인도	4,763	5,079	5,226	1,403	1,435	2.8	2.2
일본	4,197	4,774	4,415	1,129	1,283	-7.5	13.6
독일	2,910	3,140	3,139	776	736	0.0	-5.1
브라질	2,104	2,308	2,634	514	551	14.1	7.2
영국	1,905	2,255	2,322	642	667	2.9	3.9
프랑스	1,926	2,208	2,155	555	508	-2.4	-8.4
캐나다	1,566	1,754	1,899	415	436	8.2	5.0
러시아	808	1,317	1,833	393	283	39.1	-27.8
이탈리아	1,493	1,796	1,793	507	491	-0.1	-3.0
한국	1,684	1,739	1,626	378	388	-6.4	2.6
전 세계(59개국)	80,099	89,544	92,274	21,181	22,174	3.0	4.6

* 주) '25.1분기 판매량은 집계 중으로 크게 변동될 수 있음. '24.1분기' '25.1분기 판매량은 '25.1분기 판매량 미집계 6개국을 제외하고 산출
 ※ 자료원: (한국)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그 외) MarkLines (데이터 다운로드 일자: '25.5.12.)

» 우리나라 시장은 '24년에는 일본과 함께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월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모습

- 국내 주요 기관들은 내수 경기 침체로 지연된 소비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6월),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3월~6월) 등의 정책 지원으로 자극된 결과로 해석
 - 다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4년 자체 수행한 정량 모델 기반 전망에서 '25.1~4월 판매량은 계절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이후 부진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러한 전망이 실현된다면 '25년 남은 기간에는 판매량 성장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음
- 수출, 생산은 월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높은 수출 실적의 영향으로 증감률은 하락

Ⅰ 우리나라 월간 완성차 내수·생산·수출(2025년 1~4월) Ⅰ

구분	판매량(천대)					증감률(%)				
	1월	2월	3월	4월	1~4월	1월	2월	3월	4월	1~4월
내수	105	132	149	150	538	-9.0	14.8	2.4	6.7	3.8
수출	199	232	240	246	920	-17.8	17.3	-2.4	-8.8	-4.0
생산	290	352	370	385	1,398	-18.9	17.2	1.4	-2.2	-1.4

* 주) 4월 판매량은 잠정치 기준. 1~2월의 높은 변동성은 설 연휴 영향이며 1~2월 합산 증감률은 내수 2.8%, 수출 -2.0%, 생산 -2.5%임

※ 자료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업체별 판매량에서는 3개 업체의 입지가 견고한 가운데 중국 업체가 빠르게 성장 중

- 수년 전부터 각각 1, 2, 3위를 자리를 유지 중인 Toyota, Volkswagen, 현대자동차그룹의 입지는 탄탄하나 중위권에서는 업체 간 명암이 갈리고 있음
 - Renault-Nissan-Mitsubishi(RNM), GM, Stellantis(FCA·PSA), Ford 등은 일정 범위에서 순위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Honda의 판매량 순위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 분석 단위를 세분하여 제조사·브랜드 단위로 살펴보면, Toyota 계열을 제외한 일본계 전반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 중국에서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Ⅰ 2024년 기준 상위 10개 그룹사 완성차 판매량 Ⅰ

그룹사	판매량(천대)					증감률(%)	
	2022	2023	2024	2024.1Q	2025.1Q	2024	2025.1Q
Toyota	9,891	10,565	10,093	2,334	2,413	-4.4	3.4
Volkswagen	7,925	8,723	8,577	2,009	2,045	-1.6	1.7
현대자동차그룹	6,494	6,876	6,879	1,635	1,630	0.0	-0.3
RNM	5,865	6,060	6,134	1,631	1,526	1.2	-6.4
GM	6,055	6,058	5,517	1,147	1,374	-8.9	19.8
Stellantis	5,701	5,986	5,500	1,464	1,323	-8.1	-9.6
BYD	1,890	3,136	4,523	677	1,102	44.2	62.7
Ford	3,762	4,046	4,162	1,003	982	2.8	-2.1
Honda	3,795	3,988	3,830	999	911	-3.9	-8.7
Geely	2,255	2,786	3,471	760	968	24.5	27.2

* 주) 집계 대상 국가 및 합작사 판매량 합산 방법 등이 달라 해당 기업의 사업 실적 등 다른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MarkLines (데이터 다운로드 일자: '25.5.12.)

- 중국 업계는 COVID-19 이후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중국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 국유 기업보다 민간 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견고

* 특히, BYD는 극적인 성장을 보인 업체로 '19~'24년간 판매량이 약 10배 증가하고 '23년 상위 10위 내로 진입

- 中 업계의 성장은 자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기인한 것으로 '25.1Q 현재까지도 자국 시장 판매량이 대부분을 차지
- 다만,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5.1분기 주요국 견제 등으로 인해 해외 판매량 성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음에도 中 1위 업체인 BYD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유지

| 2024년 기준 상위 5개 중국 업체의 완성차 판매량 |

그룹사	판매량(천대)					증감률(%)	
	2022	2023	2024	2024.1Q	2025.1Q	2024	2025.1Q
BYD	1,890	3,136	4,523	677	1,102	44.2	62.7
중국 내	1,868	3,024	4,272	626	1,000	41.2	59.8
중국 외	22	111	251	51	101	124.7	98.6
Geely	2,255	2,786	3,471	760	968	24.5	27.2
중국 내	1,675	2,041	2,561	544	782	25.4	43.7
중국 외	579	745	910	216	186	22.1	-14.1
Chery	1,306	2,184	3,162	634	742	44.8	17.0
중국 내	1,140	1,760	2,515	505	601	42.8	18.8
중국 외	165	423	647	128	141	52.7	9.9
Changan	1,774	2,043	2,201	581	588	7.7	1.1
중국 내	1,700	1,921	2,019	542	563	5.1	3.8
중국 외	74	121	181	38	24	48.9	-36.8
GWM	1,198	1,493	1,632	361	332	9.3	-7.8
중국 내	1,067	1,230	1,232	275	256	0.1	-6.6
중국 외	130	263	400	86	76	52.1	-11.6

* 주) 집계 대상 국가 및 합작사 판매량 합산 방법 등이 달라 해당 기업의 사업 실적 등 다른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MarkLines (데이터 다운로드 일자: '25.5.12.)

» 친환경차 시장은 일부 차종에서 성장이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성장 경로에 있으며, 전기차(B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

- BEV·PHEV 시장은 중국이 과반을 차지하고 성장도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HEV) 시장은 日·美·中이 판매량 상위국이나 시장이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집중도는 낮은 구조
 - * 차종별 중국 시장 비중('24년 기준): BEV 60.6%, PHEV 76.1%, HEV 9.6%
- 수년 전부터 '24년까지는 BEV 판매량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PHEV 판매량 성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으나, '25.1Q에는 BEV 성장률이 회복되고 PHEV 성장이 둔화되면서 반전
 - BEV 시장의 성장 회복은 중국 및 주요국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나, PHEV 시장의 성장 둔화는 일부 국가에서만 관찰되고 국가별 상황 상이
- 업체별로는 중국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BEV·PHEV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나, HEV 시장에서는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상위권 선점
 - BEV 판매량 상위 모델은 Tesla Model Y·3이며 중국 내외 시장 모두에서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Tesla를 제외하면 중국 시장과 그 외 시장에서의 인기 제조사·모델이 상이

Ⅰ 차종별, 주요 국가별 판매량(2024년 기준 상위 5개국 및 한국) Ⅰ

차종, 국가	판매량(천대)					증감률(%)	
	2022	2023	2024	2024.1Q	2025.1Q	2024	2025.1Q
BEV	7,798	9,881	11,317	2,027	2,809	14.5	38.5
중국	4,818	5,634	6,795	1,054	1,618	20.5	53.4
미국	798	1,191	1,270	254	289	6.6	13.6
영국	286	338	403	89	129	19.0	44.1
독일	464	519	382	81	111	-26.2	36.4
프랑스	226	336	316	85	83	-5.8	-1.7
한국	164	163	148	26	35	-9.2	34.8
PHEV	2,761	4,125	6,339	1,102	1,403	53.6	27.3
중국	1,432	2,681	4,826	718	970	79.9	35.1
미국	186	281	306	81	83	8.6	1.8
독일	359	174	191	44	63	9.8	41.9
영국	101	141	168	42	55	19.0	30.3
프랑스	127	163	149	39	19	-8.3	-50.3
한국	11.2	9.3	7.8	1.4	3.3	-16.0	130.5
HEV	5,977	7,765	9,523	2,297	2,721	22.6	18.4
일본	1,466	1,872	2,046	576	591	9.2	2.6
미국	765	1,174	1,609	322	480	36.9	49.1
중국	815	840	915	175	204	8.9	16.4
독일	460	662	754	173	191	13.9	10.5
영국	482	601	696	192	231	15.8	20.4
한국	200	310	388	92	100	25.2	8.9

* 주) 집계 방식의 차이로 다른 통계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SNE Research

Ⅰ 차종별, 주요 그룹사별 판매량(2024년 기준 상위 5개 업체 및 현대차그룹) Ⅰ

차종, 그룹사	판매량(천대)					증감률(%)	
	2022	2023	2024	2024.1Q	2025.1Q	2024	2025.1Q
BEV	7,798	9,881	11,317	2,027	2,809	14.5	38.5
BYD	876	1,468	1,805	289	385	22.9	33.4
Tesla	1,313	1,808	1,789	386	336	-1.0	-12.9
Geely	420	575	938	156	310	62.9	98.6
SAIC	776	829	875	134	205	5.4	53.0
VW	583	753	728	138	213	-3.2	53.9
현대자동차그룹	375	427	430	93	113	0.6	21.2
PHEV	2,761	4,125	6,339	1,102	1,403	53.6	27.3
BYD	944	1,416	2,332	290	489	64.6	68.2
Chongqing	133	380	489	77	87	28.6	12.8
Geely	210	306	472	93	139	54.1	48.1
Seres	70	101	393	88	49	289.0	-44.5
Changan	40	211	360	56	68	70.8	21.5
현대자동차그룹	131	132	119	30	25	-9.9	-18.0
HEV	5,977	7,765	9,523	2,297	2,721	22.6	18.4
Toyota	2,345	3,022	3,716	828	998	22.9	20.6
RNM	602	760	983	258	293	29.4	13.7
현대자동차그룹	603	795	933	220	247	17.3	12.5
Honda	541	699	751	189	209	7.3	10.1
Suzuki	450	549	651	188	175	18.6	-6.8

* 주) 집계 대상 국가 및 합작사 판매량 합산 방법 등이 달라 해당 기업의 사업 실적 등 다른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료원: SNE Research

Ⅰ 판매량 상위 5개 전기차(BEV) 모델(단위: 천대) Ⅰ

구분	2023		2024		2025.1Q	
	모델 (제조사/브랜드)	판매량	모델 (제조사/브랜드)	판매량	모델 (제조사/브랜드)	판매량
글로벌 시장	Model Y (Tesla)	1,212	Model Y (Tesla)	1,169	Model Y (Tesla)	197
	Model 3 (Tesla)	527	Model 3 (Tesla)	534	Model 3 (Tesla)	126
	Yuan EV (BYD)	328	Seagull (BYD)	449	Seagull (BYD)	112
	Dolphin (BYD)	312	Hongguang Mini (SGMW)	282	Star Wish (Geely)	89
	Seagull (BYD)	276	Yuan EV (BYD)	267	Hongguang Mini (SGMW)	86
중국 시장	Model Y (Tesla)	456	Model Y (Tesla)	480	Seagull (BYD)	103
	Yuan EV (BYD)	327	Seagull (BYD)	425	Star Wish (Geely)	89
	Dolphin (BYD)	292	Hongguang Mini (SGMW)	282	Hongguang Mini (SGMW)	86
	Seagull (BYD)	276	Yuan EV (BYD)	265	Model Y (Tesla)	81
	Hongguang Mini (SGMW)	237	Bingo (SGMW)	210	SU7 (Xiaomi)	75
중국 외 시장	Model Y (Tesla)	756	Model Y (Tesla)	688	Model Y (Tesla)	115
	Model 3 (Tesla)	379	Model 3 (Tesla)	358	Model 3 (Tesla)	73
	ID.4 (VW)	124	IONIQ 5 (현대차)	102	ID.4 (VW)	31
	IONIQ 5 (현대차)	100	ID.4 (VW)	91	EV3 (기아)	26
	MG-4 (MG/SAIC)	86	Q4 e-tron (Audi/VW)	91	Q4 e-tron (Audi/VW)	21

※ 자료원: SNE Research

» 시장 관점에서 최근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는 ①美 관세 부과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 ②전기차(BEV) 성장률 회복, ③反 Trump·Musk 운동의 Tesla 영향 등

- (높은 불확실성) '25.1Q까지 글로벌 및 주요국 시장은 모두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 및 이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남은 기간에는 하방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평가
 - GlobalData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지 않은 추정에서도 Light Vehicle(LV) 기준으로 '25년 성장률을 3.0%로 '25.1Q 성장률 5.8%에 비해 완만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 정책 기조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 연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임
 - * 다만, '24년 성장률을 2.3%로 집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전기차 성장률 회복) 최근 수년간 전기차(BEV) 판매량 성장이 둔화되면서 전기차 캐즘(Chasm)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25.1Q에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성장률 회복 기대감 고조
 - 다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5.1Q BEV, PHEV 판매량이 각각 38.5%, 27.3%로 모두 크게 증가했음에도 '25년 BEV·PHEV 판매량(승용)을 약 14% 성장한 2,000만 대로 보며 남은 기간 완만한 성장을 예상
 - * PHEV 판매량이 심각하게 저조하지 않는다면 '25년 남은 기간 BEV, PHEV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의미
 - 中 내수 부양, EU의 환경 규제, 신흥국 시장 성장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음에도 무역·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경제의 하방 리스크, 낮은 유가 등의 제약요인의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 (Tesla의 판매량 위축) '24년 판매량이 전년비 1.0% 감소한 데 이어 '25.1Q 판매량도 전년동기비 12.9% 감소하면서, 美 보호주의 등에 따른 反 Trump·Musk의 운동의 영향 가능성 부상
 - 일각에서는 '25.1Q 판매량 위축의 원인으로 Model Y 신형 출시에 따른 구형 모델 생산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Tesla가 의도한 결과로 해석하였으나, Model Y 신형의 인도가 시작된 이후인 4월에 유럽 주요국 판매량이 전년동기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反 Trump·Musk의 영향 가능성이 재부각
 - 주요국에서 Model Y 신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6~7월 이후 인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는 건조하나 기타 요인으로 인한 생산 지연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낮은 가동률 자체를 약한 수요를 고려한 의도적 선택으로 볼 수도 있어 최소 수개월 이후에나 확실한 영향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본 원고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